

— 스포츠社会學 —

林 繁 藏
(서울大 體育教育科 教授)

I. 스포츠의 社會學的 接近

스포츠 社會學은 첫째로 現實을 集團의 現像·社會的 現像으로서 파악하려는 接近方法을 취한다. 이 경우 人間은 個人으로서의 人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集團으로서의 人間이며, 이러한 人間의 價値觀에 의하여 行動하는 存在이며 意識과 自主意志를 所有하는 人間이다. 스포츠 社會學은 스포츠現像을 이러한 人間의 集團으로서 認識하는 것이다.

둘째로 스포츠現像의 集團的 側面을 歷史的 으로 또는 社會的으로 규정되는 바와 같이 全體概念으로서 理解하려는 接近方法을 취하는 것이다.

세째로 스포츠現實 가운데 設定된 集團에 對하여 蓋然의 法則이라는 것은 過去가 그대로 反復되는 것이 아니라, 形態를 바꾸어 反復되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스포츠 社會學은 이와같이 세 가지 接近으로부터 스포츠現像을 抽出하여 研究를 展開한다.

II. 스포츠社會學의 研究領域

스포츠活動 가운데에서 集團內에 있어서 個人的 行為나 集團形式機能의 樣式이 어떻게 類型화되고 制度化되는가. 다시 말해서 스포츠集團 生活 가운데에서 行動樣式이 制度化되기 위해 媒介過程(社會的 事實로서의 스포츠)의 具體的인 研究가 스포츠社會學의 中心內容이 된다.

이때 集團과 文化的 관계 및 社會變動이 影響을 明確하게 區分하여 나눌 수는 없다.

1. 社會的 行為에 관한 研究內容

퍼스널리티, 社會的 行動, 社會的 事實 등에 관한 研究이다. 社會的 存在의 樣式을 共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共通된 퍼스널리티의 類型이 形成되는 傾向이 있다. 運動部集團(身體運動을 第一의 機能으로 하는 集團)이 갖는 共通의 性格이다. 同一樣式의 集團 및 다른 集團과 相異한 性格을 形成하여 가는 事實을 證明하는 研究分野이다. 特定集團이나 社會的 範疇 가운데에서 人間 사이의 行為나 相互作用의 事實을 밝혀 社會的 法則을 發見해 나아가는 研究領域이다.

2. 集團에 關한 研究內容

學校運動部, 體育學習集團, 學校스포츠集團이나 學校스포츠聯盟 및 이와 유사한 組織團體나 協會 등 集團의 類型에 의한 그의 特性이나 機能·構造 등에 관한 研究이다. 스포츠活動을 그 주된 目的으로 하여 機能하는 集團의 構造的·機能的 特性을 밝히는 것을 目標로 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社會過程(變化過程)의 研究가 重要하게 된다.

이 때문에 小集團研究의 企業이나 產業社會學 또는 社會心理學(集團內에 있어 行動樣式이 類型化되어 制度化되기 위한 節次로 간주되는 過程을 具體的인 것으로 합과 同時に 이의 解決을 위한 研究)의 方向이 參考될 것이다.

3. 文化나 制度에 關한 研究內容

精神體係(非物質文化)에 屬하는 行動文化(外面的文化)로서의 制度나 規範, 貫習, 規則 등으로부터 精神文化(內面的文化)로서의 信念, 이데올로기(輿論 등의 社會意識이나 目的意識의 인

所產) 및 스포츠맨쉽이나 아마츄어리즘 등의研究이다. 物質文化에 屬하는 것으로서 技術體係에서는 指導法이나, 놀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道具, 建物, 機械, 施設 등과 같이 物理的對象과 이를 使用하는 方法 및 技術要素의 研究가 있으며, 施設, 設備, 用具 등의 發達과 變遷에 관한 研究도 있다. 여기서는 集團과 文化的關聯에 있어서 스포츠文化나 教授學習課程의 分析研究가 中心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스포츠社會學의 學問的關係의 研究나 思辨的, 文獻的研究 등을 內容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4. 社會變動의 影響에 관한 研究內容

社會의 變化에 따라 일어나는 스포츠集團이나 스포츠文化에 대한 影響 또는 變容의 過程에 관한 研究이다. 이에는 스포츠에 대한 社會의 要求나 大衆化, 學校施設開放, 教科外 體育кл럽의 屬性 등에 관련한 體育教師의 役割, 機能의 問題에 관한 研究가 있다. 그리고 社會問題의 現像으로서는 進學과 스포츠, 體力과 運動, 野外活動과 事故發生 등 社會변화의 영향에 의하여 일어나는 社會問題도 包含된다.

그러나 現在에 있어서는 순수한 스포츠社會學의 獨自의인 課題에 대한 過去의 研究結果의 集積은 아직 充分히 確保되어 있지 않은 實情에 놓여 있다. 한 결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知識의 體系化는 더욱 더 틀이 잡히지 않아 스포츠社會學의 學問的成立을 遷滯시키고 있다. 오늘날 까지의 스포츠社會學研究領域의 추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포츠現像에 대한 社會科學的研究라 할 수 있으며 결국 스포츠社會學은 社會學의 知識이다. 理論 및 研究方法을 스포츠現像에 適用한 應用社會學의 立場을 취한 것이 그 特徵이다.

III. 스포츠社會學의 研究方法

스포츠社會學 分野에 있어서의 研究의 接近에는 規範的接近과 非規範的(記述的)接近의 두 가지가 있다.

規範接近은 價值指向的 研究이다. 이는 事物

의 當爲性에 관한 假定에서 出發하여 이에 對한 賞否의 證據를 찾기 위한 研究이다. 이에는 세 가지 型의 規範的研究가 있다. 第1의 型은 共產圈國家의 社會學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研究는 스포츠란 國家目的에 副應하도록 組織되고 봉사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 方向을 떠는 것이 차별적이다. 여기서 스포츠 社會學은 社會의 向上에 寄與할 任務를 막고 있는 것이다. 第2 規範의 研究의 型은 美國과 西歐의 體育學者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에 있어서 研究는 性格(勤勉, 競爭, 페어플레이, 팀워크의 價值觀學習)의 形成에 스포츠가 이바지하는 바를 立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第3의 規範의 研究의 型은 誤謬拂拭의 機能을 지니고 있다. 研究者는 事前에 一定事物에 대한 誤謬를 假定하고 이의 證明을 위한 論理를 展開한다. 이의 實測은 스포츠에 있어서 차별적인 人種差別을 證明하기 위하여 遂行되는 研究를 들 수 있는. 또한 스포츠가 여하히 競爭性, 選良主義, 國家主義, 軍國主義, 性差別 그리고 人種差別을 助長함으로써 資本主義를 維持하여 나아가는 手段이 되고 있는가를 주장하기 위한 意圖를 가지고 行하는 마르크시즘의 論理 등이 이에 屬하는 研究이다.

非規範的接近은 規範의인 것과는 對照적으로 事物의 當爲性이 아닌 그 存在性을 있는 그대로 科學的으로 記述하고 說明하는 態度를 지닌다. 이와 같이 非規範的接近의 基本原理는, 研究者는 반드시 客觀의이어야 하며 따라서 價值中立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는 本源의으로 良(good)도 아니고 僞(bad)도 아니다. 스포츠의 目的是 容認되지도 否認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러한 價值中立의接近이 지니는 重大한 問題는 選擇意志의 아니란 것이다. 그리하여 價值中立의 立場에 서 있는 研究者は 現狀의 陳述을 立證하는 데 注力하게 된다. 만일 스포츠에 人種差別과 性差別 그리고 藥物誤用이 있고 또한 選手가 惡用되어진다면 우리는 中立의in 立場을 堅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不正에 對하여 道德의 無關心을 維持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데 價值中立의 態度가 葛藤을 일으키는 것이다. *